

힐러리 오차범위 내 불안한 리드 ‘살얼음판’



미국 대선, FBI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무혐의 종결

힐러리 “당연한 결과” 환영…트럼프 “부패는 사실” 반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6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하자 클린턴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하원 정부개혁 감독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클린턴의 이메일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클린턴 캠프의 제니퍼 팔미에리 공보국장은 “코미 국장이 지난 7월 내린 (불기소 권고) 결론을 확인해 다행”이라며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했으며, 문제가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클린턴 캠프 대변인 브라이언 펠론 대변인도 “우리는 항상 7월 결정이 바뀔 일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이제 코미 국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트위터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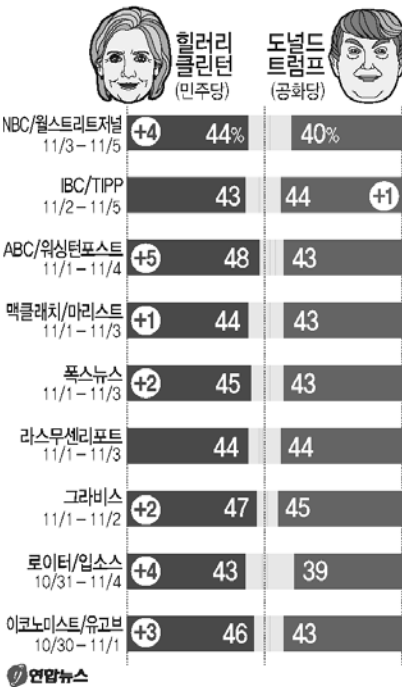
클린턴과 캠프 인사들은 필라델피아 유세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클라블랜드 유세장으로 가는 길에 이메일 재수사 종결 소식을 접했다. 참모들은 비행기 이륙 전 와이파이 신호가 끊기기 전에 휴대전화에 뜬 뉴스를 돌려 봤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대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코미 국장이 이메일 재수사 방침을 발표하고서 대선판이 요동친 가운데 이미 9일간 조기투표가 치러졌다.

이에 민주당원들은 무혐의로 재수사를 종결한 FBI 방침을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매우 불안해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런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듯 민주당 앨 프랭컨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이날 CNN 시사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나와 “코미 국장의 이메일 수사 처리에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대한 청문회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어 코미 국장이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했다.

공화당은 이메일 재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클린턴은 부패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미네소타 유세 도중 FBI 재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클린턴은 왜곡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대선에 나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권력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클린턴은 국가 기밀을 위협에 빠뜨렸고 안보 사항을 누설했다는 게 반박할 여지 없는 FBI 수사의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클린턴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으며 항상 자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며 “미국인들은 클린턴가의 스캔들을 4년 더 참으려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위원장도 “FBI가 클린턴 재단 부패 수사를 계속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클린턴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5 전원시인 도연명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 시인이다. 자는 원량이며 강서성 주상현 시상 출신이다. 증조부는 동진의 명신인 도간이며 외조부는 명사 맹가다. 그의 시풍은 후일 맹호연, 왕유 등 당대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도간은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뛰어난 직무능력으로 군공을 세워 요직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사후 집안의 가세는 다시 기울었다. 기본적으로 동진 왕조는 명문 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도연명은 자신의 신분을 일찍이 예민하게 인식했다. 그가 쓴 ‘자제문’에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가난한 운명을 만났기에 밥그릇은 자주 비고 거친 배옷으로 겨울을 보냈다. 바빠 쉴 틈이 없었으나 마음은 항상 한가로웠고, 하늘이 준 본수

집안을 번성케 하고 경륜을 펴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접고 전원으로 돌아가 평범한 인간사에 애착을 느끼고 이를 시로 승화시켰다.

은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름을 도잠(陶潛)으로 개명했다. ‘잠’에서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과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시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당시는 동진이 몰락하고 동진의 장군인 유유가 송나라를 건국하던 정치적 전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는 시대적 아픔과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표출되어 있다. 시 독산해경의 “태양과 경주했던 관보의 남은 흔적 등정에 깃들고, 그 공은 결국 사후에 빛나네”라는 구절은 이러한 정서를 잘 보여준다.

그의 은거생활은 국화를 키우고 술을 마시는 삶이었다. 따라서 국화에 관한 시가 적지 않다. 그가 지은 시 ‘음주’에 나오는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술의 성인…‘귀거래사’ 지금도 회자

에 즐거워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가 후일 당시 선비들이 하찮게 여긴 농경 생활을 자원으로 삼은 신분에 대한 그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29세때 관직에 들어가 주의 재주가 되지만 곧 사임했다. 이후 진군참군, 건의참군 등의 벼슬을 했다. 늘 전원생활에 대해 깊은 동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41세때 누이가 죽자 팽배현령을 그만두고 은퇴하였다. 은퇴와 함께 시인으로서의 제2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관직을 그만 둔 핵심 사유는 관직이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세속의 기질과 맞지 않았고, 본래 성품이 산을 좋아했다.” “오래도록 새장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왔네” 같은 시구에 간절한 귀향 본능이 잘 표현되어 있다. 퇴직하면서 쓴 유명한 귀거래사(歸去來辭)는 “돌아가자, 전원 이 바야흐로 목으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로 시작해 “저 천명을 즐기면 그만이지 또 무엇을 의심하랴”로 끝난다. 속세로부터의 은둔으로 평소 꿈꾸던 전원생활을 시로 읊었다.

그도 한때는 관직생활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어했다. 그의 잡시에 “맹지(猛志)가 사해를 넘쳐 나오니 날개를 펼쳐 저 멀리 날아가고자 생각했노라”라는 구절이 있다. 입신출세해 한미한

국화를 따다 멀리 남산을 바라보다”(彩菊東籬下，悠然見南山)는 시구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문장이다. 그의 시에는 술에 관한 구절이 유독 많다. 그래서 이때백은 술의 신선, 소동파는 술의 친구라 한 반면 그는 술의 성인으로 불리었다. 동시대의 고승 혜원도 ‘백련사’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도 참가를 권유받았다. 승려와 문사가 참여한 모임이었다. 술을 좋아하는 관계로 ‘술을 마셔도 좋다면 가겠다’는 조건하에 가입해 혜원이 있는 여산을 찾았는데 뜻이 맞지 않아 바로 돌아왔다고 한다. 세속적 성격의 백련사 모임이 은둔자인 그에게는 체질상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시문은 당시에 유행했지만 크게 평가받지는 못했다. 문학평론가 종영은 그의 ‘시풍’에서 도연명을 중품(中品)으로 평가했다. 복제의 양후지는 “내가 그의 문장을 읽어보니 문제는 비록 뛰어나지 않지만 간혹 뛰어나고 남다른 말이 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당황조에 들어와서는 당시 시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북송의 소동파는 그의 시를 “절박하면서도 실재로는 화려하고, 빈약한듯 하지만 실제로는 풍성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설마? 트럼프 당선될라...기후협약 당사국들 ‘좌불안석’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7일(현지시간) 개막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기후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196개 당사국이 모두 모인 이번 회의에서 미국 대선의 집전 양상 때문에 초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신기후체제 수립을 목표로 체결된 기념비적인 협정은 물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빌마허가 진행하는 TV쇼에 출연해 “파리협정을 포함한 기후변화와 관련해 수십 년간 이룩한 진전이 이번 대선 투표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그간 파리협정에 대해 ‘국과 국’의 견해차를 보여왔다.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은 파리협정 준수 등 버

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가 도입한 환경규제를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 공화당이 세계에서 드물게 기후변화 자체를 불신하는 정파라는 사실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을 더 초조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파리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위협은 쉽게 실행

에 옮기지 못할 것이지만 협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4일 공식 발표한 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당사국들이 12일 동안 논의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나눠 책임지게 한다. /연합뉴스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39억8천만 광양시 봉암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경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총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경매 <table style="width: 100%;"> <tr> <td>골프연습장</td> <td>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td> </tr> <tr> <td>광양시 성황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홀</td> <td></td> </tr> <tr> <td>가스충전소</td> <td>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td> </tr> <tr> <td>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가 / 3기 6구</td> <td></td> </tr> <tr> <td>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td> <td>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td> </tr> <tr> <td>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td> <td></td> </tr> <tr> <td>숙박시설 부지</td> <td>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td> <td></td> </tr> <tr> <td>전통한옥식 전원주택</td> <td>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td> </tr> <tr> <td>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td> <td></td> </tr> </table>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홀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가 / 3기 6구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홀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가 / 3기 6구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5억 학동 / 신축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매매 <table style="width: 100%;"> <tr> <td>상가</td> <td>매매가 17억</td> </tr> <tr> <td>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td> <td></td> </tr> <tr> <td>전원주택</td> <td>매매가 13억</td> </tr> <tr> <td>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td> <td></td> </tr> <tr> <td>숙박시설 부지</td> <td>매매가 8억 5천만</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td> <td></td> </tr> <tr> <td>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td> <td>매매가 5억 5천만</td> </tr> <tr> <td>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td> <td></td> </tr> <tr> <td>계곡 산장</td> <td>매매가 3억 5천만</td> </tr> <tr> <td>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td> <td></td> </tr> </table>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